

녹색성장의 한걸음, 에너지절약 실천 'ME FIRST'

I. 에너지 절약 실천, 왜 필요한가?

☞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핵심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임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가뭄·홍수·폭염 등 기상재해의 직접적 경제손실만이 아니라 국민건강 등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GDP 20%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온실가스의 84%는 에너지 사용에 의해 발생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 첫째,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둘째, 신성장동력 창출
- 셋째,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내가 먼저 실천!

- 에너지 절약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나 먼저 실천'이라는 생활혁명으로 서의 삶을 요구함. 작은 실천이 모여 지역, 국가 차원의 녹색혁명을 가능하게 할 것임. 국민이 실천함으로써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녹색 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에너지절약실천 관련 국민의식 조사 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정현안 및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성관련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기적인 현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 현안조사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1)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2)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실태 3) 에너지 절약 시책 관련 행동 동기 및 장애요인을 조사함
- 조사대상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으로 남성 400명, 여성 400명이 응답 함.
-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됨.
- 일부 조사결과는 미국의 연구와 비교하였음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는 남녀를 구분하여 응답결과를 분석하지 않았고 전체 응답자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음.

II. 우리나라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 어느 정도인가?

이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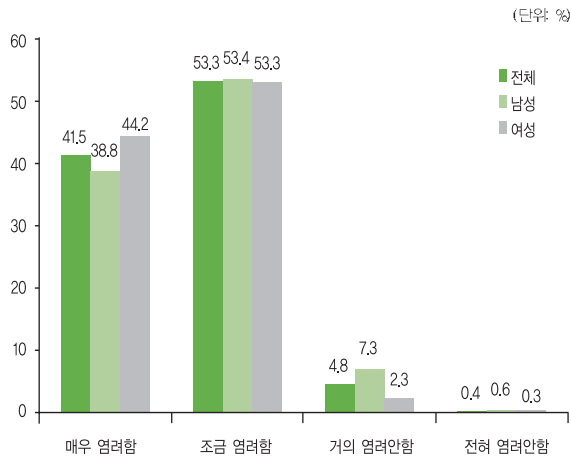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 국민 대부분은 지구온난화 현상을 염려하고 있음

- 조사응답자 대부분(88.6%) 폭설/폭염이 지구온난화의

1) George Mason University Center for Climate Change Communication(2008), "Saving Energy at Home and on the Road: A Survey of American's Energy Saving Behaviors, Intentions, Motivations, and Barriers"(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2,164 American adults).

영향으로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조사응답자의 95%가 지구온난화를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매우 염려한다는 응답률도 41.5%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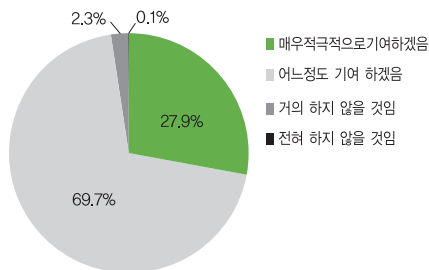


[그림 1] 지구온난화 현상 염려정도

-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염려' 정도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나, 여성의 염려함(매우 염려, 44.2%, 조금 염려 53.3%)응답률이 남성(매우 염려 38.8%, 조금 염려 53.4%)에 비하여 다소 높음. 가구당 월소득 구분으로 볼 때는 소득이 높은층이 매우 낮은층(150만원 미만) 보다 염려정도가 높음.

☑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국민은 97.6%로 나타남

- 조사응답자는 개인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인식이 지배적임(97.6%).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27.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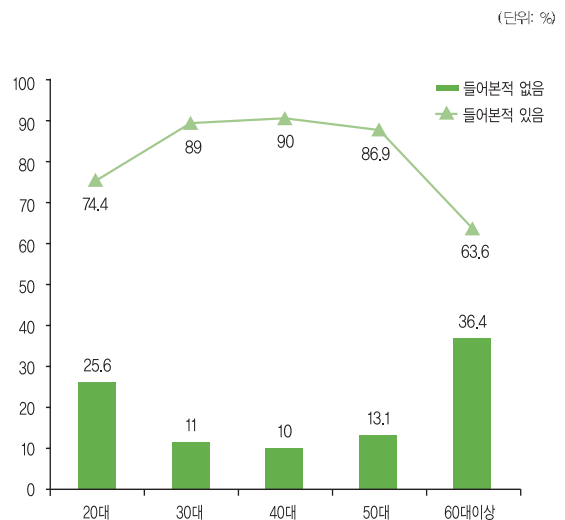


[그림 2] 지구온난화 방지 기여의지

- 청년층은 녹색성장 용어 인지도, 녹색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녹색성장 용어 인지도가 전체의 81.5%, 녹색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인지도가 전체의 78.7%인 것에 비하여 20대 청년층은 용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74.4%) 나타남

- '녹색성장' 용어 및 녹색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비교적 높으며 (용어 인지도 81.5%, 정책 방향 인지도 78.7%), 성별을 구분하여 보면, 용어 인지도와 정책방향 인지도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책방향 인지도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26.1%)에 비하여 여성(15.2%)이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50대 장년층에서 '녹색성장' 용어를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률이 86.9%~90.0%인데 비하여 20대 청년층은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률이 74.4%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도시특성별로는 녹색성장용어를 들어본 경험에 있어서 대도시, 중소도시는 86.4%, 81.0%의 응답률이 나타나지만, 읍면지역은 58.1%로 낮음.
- 청년층과 읍면지역에 대한 녹색성장 홍보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 연령별 '녹색성장' 용어 인지도

☑ 녹색성장 추진이 국가발전(78.5%) 및 국민 삶의 질 향상(65.9%)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함

- 녹색성장 추진으로 국가발전 및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인식이 다소 높음.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65.9%)보다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78.5%)이라는 인식이 더 높음.

녹색성장으로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여기는 비율이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이 20대~40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구당 소득과 연관되어 있음. 가구당 월소득 44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81.6%가 녹색성장 추진이 자신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가구당 월소득 15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률이 62.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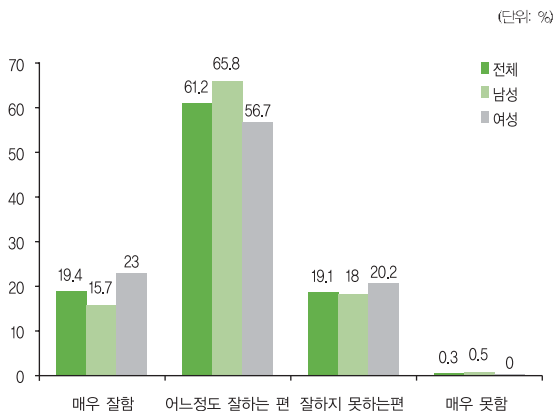
- 국민의 개인적 삶의 질과의 연관성 측면보다도 국가적 의제로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녹색성장이 고소득 집단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 수 있도록 소득계층을 고려하는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슈 #2

가정의 에너지 절약 실태

☞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률은 높은 편이나 (80.6%),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19.4%에 불과하여 적극성은 부족한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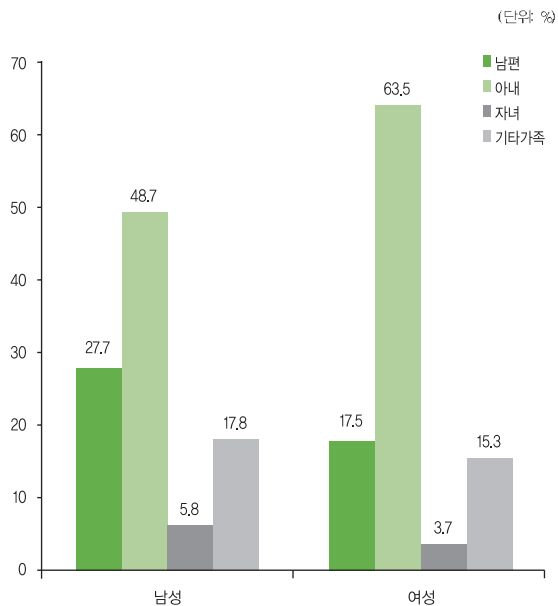
- 현재 생활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80.6%로 나타나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에너지 절약 실천 정도에 대한 응답률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61.2%로 나타나지만, '매우 잘한다'는 19.4%밖에 되지 않음.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15.7%)보다는 여성(23%)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4] 에너지 절약 실천 정도

☞ 에너지 절약 적극적 실천행동가는 주로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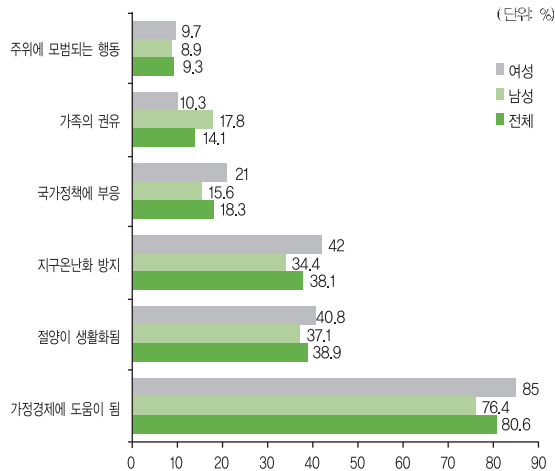
-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적인 구성원은 2인 이상 가정에서 남성 응답자의 48.7%가 '아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응답자의 63.5%도 '본인'이라고 응답하여 가정에서 적극적 에너지 절약 실천 행동가는 대체적으로 여성임을 알 수 있음. 가정의 구성원 중 '남편'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는 응답률은 남성 스스로 응답한 경우에서 27.7%, 여성응답자에게서 17.5%로 전체 응답자의 22.6%를 차지함. 가정에서 남편보다는 아내가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 가정의 에너지 절약 적극적 실천가

☞ 에너지 절약 실천 동기는 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절약 실천 동기는 무엇보다 '가정경제에 도움이 됨'을 가장 많이 지적함(80.6%). 그 다음은 '절약이 생활화됨(38.9%)', '지구온난화 방지(38.1%)', '국가 정책에 부응(18.3%)' 순으로 나타남. 에너지 절약 실천 동기에 대한 응답률에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됨, 절약이 생활화 됨, 지구온난화 방지, 국가정책에 부응, 주위에 모범이 되는 행동은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가족의 권유에 대한 응답률은 남성(17.8%)에게서 여성(10.3%)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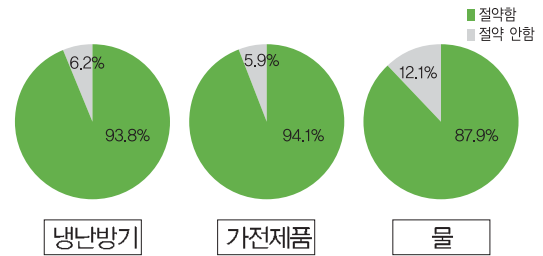


[그림 6] 에너지 절약 실천 동기(중복응답)

- 미국의 경우에서도 냉난방기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행동을 통하여 절약행동을 하는 경우, 겨울철 난방기 온도 낮추기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동기는 '금전적 이득(89%)'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은 '에너지 절약(81%)', '기후온난화 줄임(35%)', '윤리적 행동(24%)', '쾌적감(21%)', '주변의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7%)', '주변 사람이 요구함(6%)', '칭찬을 들음(5%)' 등임. 여름철 냉방기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이유도 동일 수준으로 응답률이 분포됨.
-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절약 동기를 살펴볼 때, 금전적 이득(가정경제에 도움), 에너지 절약(절약의 생활화), 기후온난화 줄임(지구 온난화 줄임)의 세 가지 항목이 주요 동기임을 알 수 있음.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는 윤리적 행동이 절약 동기(24%)로 응답됨. 한국의 경우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절약행동을 한다 (18.3%)는 응답률이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절약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후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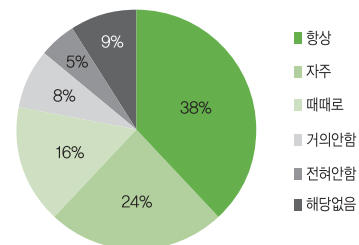
❏ 냉난방기기 및 물 사용시 절약행동을 당연하게 생각 하며(98%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 의지를 가짐

- 냉난방 기기, 가전제품, 물 사용시 에너지를 절약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대부분 인정함(99.3%). 하지만 '현재 실천률'은 절약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보다 낮게 나타남(절약 실천률: 냉난방기기 93.8%, 가전제품 94.1%, 물 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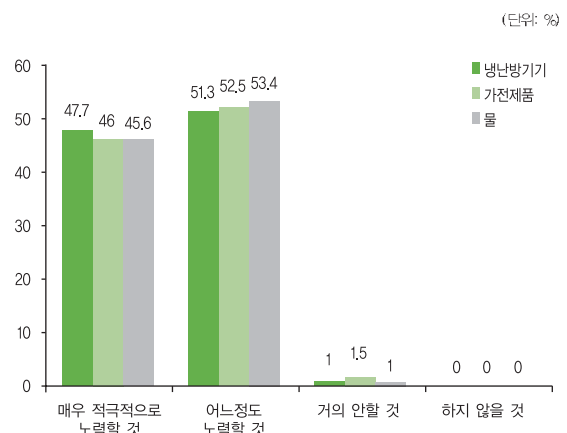
[그림 7] 현재 에너지 절약 실천률

- 미국의 경우 겨울철 난방기 사용시 낮은 온도 유지를 통하여 절약을 실천하는 비율을 알아본 결과, '항상' 절약을 실천한다는 비율은 38%로 나타나고, 그 다음은 '자주(24%)', '때때로(16%)', '거의 안함(8%)', '전혀 안함(5%)', '해당 없음(9%)'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남. 절약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3%에 이룸. 한국과 미국의 냉난방기 절약 실천률을 보면 한국(93.8%)이 미국(78%)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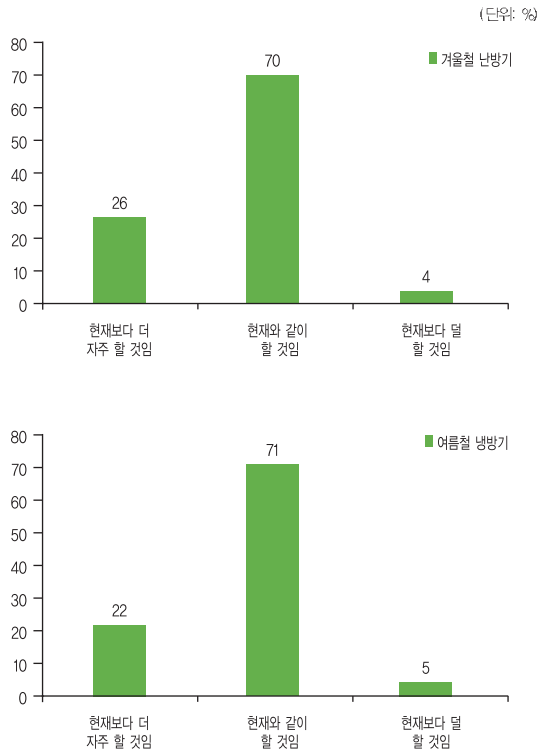
[그림 8] 겨울철 난방기 절약 실천률

- 본 조사에서 향후 에너지 절약 의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냉난방기기 사용시 절약하겠다는 응답률은 99.0%(매우 적극적 노력 47.7%, 어느 정도 노력 51.3%), 가전제품은 98.5%(매우 적극적 노력 46.0%, 어느 정도 노력 52.5%), 물은 99%(매우 적극적 노력 45.6%, 어느 정도 노력 53.4%)로 나타남.



[그림 9] 향후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

- 연령층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20대 청년층은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20대 33.1%, 30대 35.9%, 40대 43.9%, 50대 53.1%, 60대 이상 67.9%). 이와 같은 특징은 '현재 물 사용시' 절약 여부에서도 유사함. 장년층이 절약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90%를 넘지만 20대 청년층은 절약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80.6%로 상대적으로 낮음.
- 미국의 경우 냉난방기기 사용시 에너지 절약 행동 의지를 알아본 결과, 겨울철 난방기 온도 낮추기에 대하여 '현재보다 더 자주' 온도를 낮추는 행동을 하겠다는 비율은 26%이고, 70%가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절약 행동을 하겠다고 응답함. 여름철 냉방기 에너지 절약에서도 동일 수준임.



[그림 10] 냉난방기기 사용시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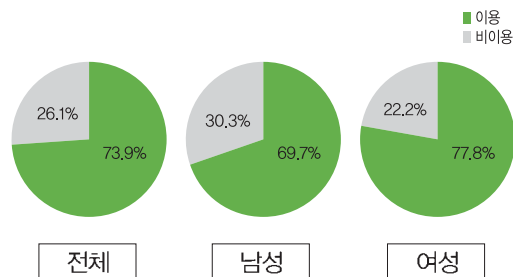
- 미국인들은 현재보다 더 강화된 절약 행동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음.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실천률 73.9%

- 조사응답자 중 승용차를 보유한 비율은 71.4%이고,

승용차보유자들이 응답한 결과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92.8%).

-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대중교통 이용률 73.9%).
- 현재 실천률에서 여성(77.8%)은 남성(69.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그러나 향후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2.1%로 현재 실천률(73.9%)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1]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이용 실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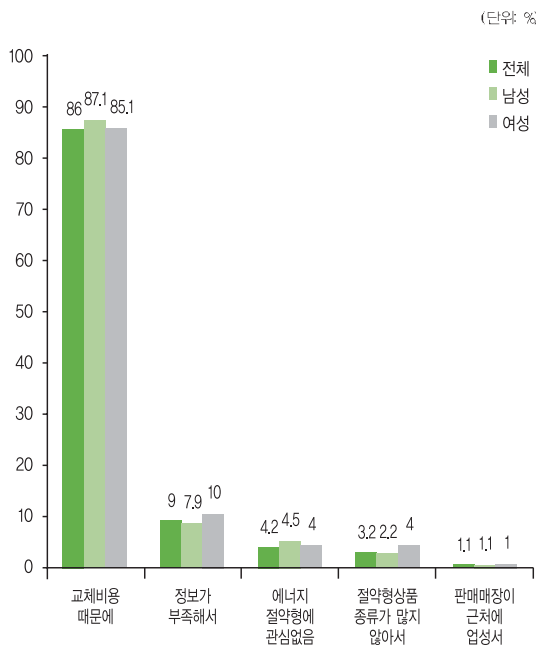
- 대중교통 이용 실천률은 연령별 차이가 있으며, 30대와 40대가 낮게 나타나 57.7%, 69.5%인 반면, 20대, 50대, 60대 이상은 각각 85.9%, 84.3%, 89.7%로 나타남. 소득계층에 있어서는 가구당 월소득 15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대중교통 이용 실천률은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미국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또는 카풀을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비율은 '전혀 안함'이 35%, '거의 안함' 19%, '때때로' 15%, '자주' 9%, '항상' 9%, '해당없음' 13%로 나타남. 실천률은 33%로 볼 수 있음. 대중교통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비율은 한국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또한 향후 대중교통 이용 또는 카풀을 함으로써 절약행동을 하겠는지를 묻는 결과에서 '현재 보다 더 많이 할 것임'은 17%, '현재와 같이' 68%, '현재 보다 덜할 것임' 15%로 나타남. 미국인이 향후 절약 행동을 하겠다는 비율은 '현재 상태 유지'와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합하여 85%정도에 머무름. 향후 대중교통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다는 비율은 한국(92.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이슈 #3

에너지 절약 시책에 대한 순응

☞ 에너지 절약형 물품으로 교체하는 데는 '교체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음

- 조명, 가전기기 등 에너지 절약형 가정용품 판매시 높은 교체비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교체의향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교체의향 52.6%). '교체의향'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구당 월소득 44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64.7%인 반면, 15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34.2%로 낮게 나타남. 에너지 절약형 제품 판매시 교체비용에 대한 고려가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절약형 물품으로 교체할 의향이 없다고 하는 응답자가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교체비용 때문(86.0%)'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음. 또 다른 이유로는 '정보가 부족해서(9.0%)' 등임.



[그림 12] 에너지 절약형 물품 교체 비의향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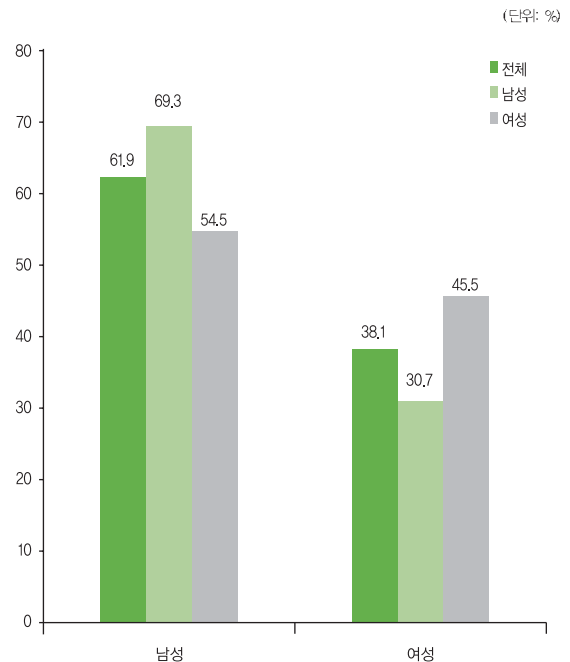
- 미국의 경우에서도 고효율 난방기기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률이 나타난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42%)' 이고, 그 다음은 '새 물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29%)', '살 여유는 있지만 지출을 하고 싶지 않음(5%)', '너무 바빠서(2%)', '가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2%)',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서(2%)' 순으로 나타남.

-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볼 때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음. 에너지 절약형 물품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녹색 물품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개발이 요구됨.

☞ 자전거 생활화에 동참의향은 61.9%임

-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생활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84.0%로 높은 편임. 동참의향은 인지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61.9%임. 자전거 생활화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비율은 여성(54.5%)이 남성(69.3%)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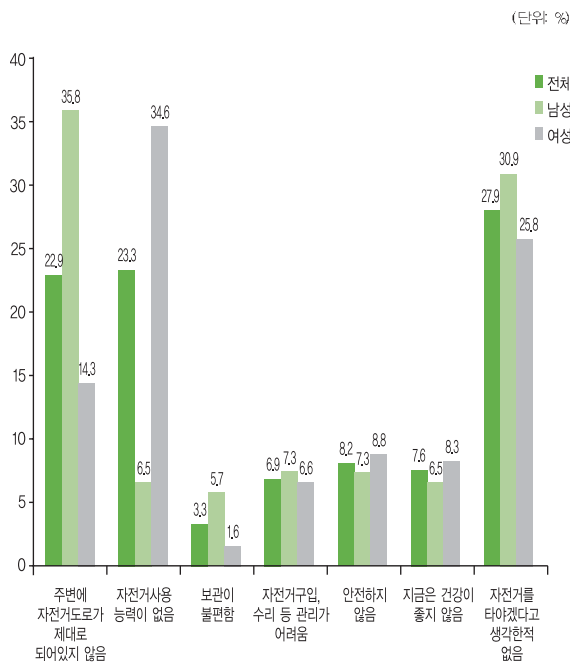
[그림 13] 자전거 생활화 정책 동참 의향

☞ 자전거 생활화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자전거 사용능력 장애'와 '자전거를 타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음'이 응답률이 다소 높고 남성의 경우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의 미비'를 지적함

- 자전거 생활화 정책 비동참 이유는, '자전거를 타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음(27.9%)', '자전거 사용능력이 없음(23.3%)',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22.9%)' 등임. 성별을 구분하여 보면,

남성은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35.8%)'을 이유로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자전거 사용능력이 없음(34.6%)'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집단에서 '자전거 사용능력이 없음'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향후 자전거 생활화 정책에 동참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자전거 타기에 대한 중요성과 흥미를 유발하는 일과 자전거 사용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일,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이밖에도 안전감을 높이는 것, 관리의 수월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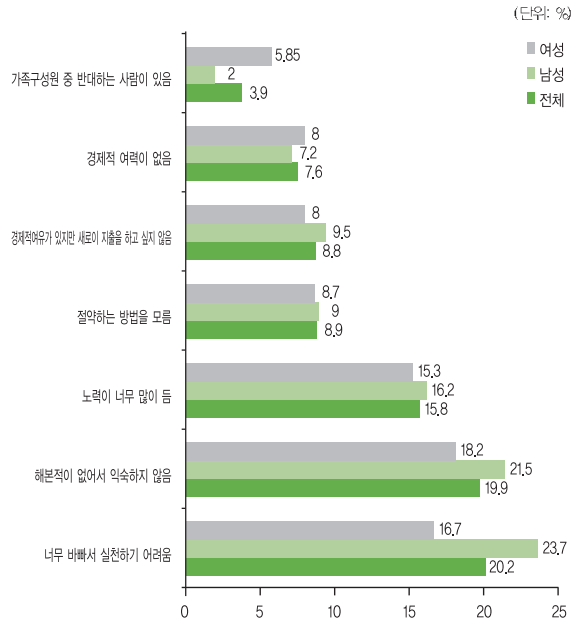
[그림 14] 자전거 생활화 정책 동참 비의향 이유

이슈 #4

에너지 절약 실천 장애요인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에너지 절약에 소극적임

- 에너지 절약 실천시 장애요인(중복응답)으로는 '너무 바빠서 실천하기 어려움(20.2%)', '해본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음(19.9%)', '노력이 너무 많이 듦(15.8%)' 등으로 개인적 번거로움이 주로 지적됨.



[그림 15] 향후 에너지 절약 실천시 장애요인(중복응답)

-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너무 바빠서 실천하기 어렵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25%). 경제적으로는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인 15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음'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에너지 절약 실천이 바쁜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의식적인 행동 의지와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방법의 개발과 홍보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소득이 낮은 집단에게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냉난방기기마다 온도를 조절하거나 미사용시 단전, 단열 처리가 되도록 처리를 하는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번거롭게 여기는 청년층 세대들에게는 더욱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에너지 절약형 물품 교체를 통하여 절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비용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III.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 실천 효과에 대한 영상물 제작·보급 확대

-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하여는 국민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하지만,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는 장년층과 비교시 청년층의 참여가 낮게 나타나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강화 필요성이 있음.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녹색생활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청년층이 물 사용 등에서 절약 실천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의지에서도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인식 때문일 것임.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절약을 실천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실천행동이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와 더불어 도시지역에 비하여 읍면지역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이 정책 추진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실천 리더로서 주부 육성·지원

- 국가전략 추진 체계 내에서 가정 내 여성이 중요한 기여자가 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야 함. 녹색성장 전략 상의 각종 세부 사업의 주체로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전문성을 가지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인력이 여성임. 나아가 여성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각종 의사결정의 장에 균형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이는 여성의 생활실천이 생활활동으로 연결됨으로써 생산의 적합성을 보다 더 높이는 일이 될 것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체계 상에서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이 40%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활자로서 경험이 풍부한 주부가 사업 기획 등에 관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인센티브 강화

- 가정의 에너지 절감, 녹색 물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요구됨. 가정 부문에 고효율 기기 등의 교체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적, 국민적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교체가 용이한 물품, 즉 LED전구, 절수기 등을 단기간에 걸쳐 교체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함.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교체비율은 높아질 것임. 이에 대한 지원 실태 파악 및 향후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함.

㉮ 여성친화적 자전거 이용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불조성

- 자전거 생활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공동체에서 시민들과 더불어 추진되는 자전거 생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자전거 도로의 전국적 연결, 주거지의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관리의 안전성 구축, 여성친화성 부족 해결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 특히 여성은 자전거 타기를 잘 하지 못하는 인구가 남성에 비하여 많은데, 이는 잠재적 이용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자전거 타기를 용이하게 배울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의 마을 공공기관에서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자전거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에너지 절약 실천 가이드 북 개발

- 에너지 절약 실천 장애 요인은 '너무 바빠서 실천하기가 어려움', '해 본적이 없어서 번거로움', '노력이 많이 듦' 그리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보다 용이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현재 홈에너지닥터 활동 등이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돕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에너지 절약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저탄소 녹색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 가이드 북을 개발하여 물품별 상세한 설명을 통해 국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실천을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책자의 보급과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